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을 검토 중

- 3월말부터 등유·LPG 난방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도 주요내용〉

4.20.(목) MBC에서는 정부의 등유·LPG 난방비 지원금이 겨울이 지나간 4월 초에 나왔으며, 6월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며,

특정은행 1곳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은행 지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지원금 수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였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❶ 저소득층 등유·LPG 난방비는 3월말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지난 겨울 난방비 대책(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3.2.15.)의 일환인 저소득층 등유·LPG 지원은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신청을 받아 3월말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 진행 중이다.

다만 카드/쿠폰의 사용기간이 6월말까지로 짧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② 카드는 은행 영업점 방문 외에 전화 신청 후 우편 수령도 가능하며, 사용 기한 내 언제든지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카드 발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당초, 복수의 카드사를 통한 난방비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신규 카드 출시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등유바우처’ 지원에 이용되는 등유바우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44-203-5253)

